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생각하는 통장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혁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4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불교 청소년 교화의 효시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청소년교화연합회기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조직적인 청소년포교를 편지 30년인 셈이다. 미래 한국불교를 짊어질 새싹불자를 키우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이제 새롭게 인식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 교화의 자세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청소년 교화

선남자야 비유컨대 장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반자(半字)를 배우게 하고, 반자가 바르게 된 다음에 차례를 따라 뜻이 깊은 이론을 가르쳐 아들의 학문을 성취시킨다. 〈대반니원경〉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해야한다. 자식을 타일러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일을 가르쳐주며, 사람이 자식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해야한다. 〈육방예경〉

먼저 자기가 악을 제거한 다음에 남을 가르쳐 악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 주제에 남을 가르쳐 악을 제거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먼저 자신이 보시하며, 자신이 계를 지키며, 자신이 만족할 줄 알며, 자신이 근행정진 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남을 교화하는 것이다. 〈우바한계경〉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응당 세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많이 배워 온갖 음절과 어질음을 지님이요, 둘째는 세간 출세간의 온갖 언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음이요, 셋째는 과괴됨이 없어서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사원비파사론〉

다섯 가지의 잘못을 범했을 때 꾸짖을 것이니, 믿지 않음, 게으름을 피움, 욕설함, 부끄러움을 모름, 나쁜 벗을 가까이함이다.

다섯 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 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일을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 주지 않음이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가르침을 펴면서 듣는 자를 위해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마의 소행이다. 〈마억경〉

제가 가르침의 본의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저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신경〉

관련기사 18면

"한국불교 인터넷 통해 세계로"

본사 '부다피아' 국내 첫 불교정보 실시간 서비스

美 링크스타 '고평가'…초파일 봉축행사도 안내

인터넷을 통한 불교관련 정보의 세계화 시대가 열렸다.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Buddhapia)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정보서비스에 돌입 국내외 불교관련 정보를 1백 50개국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인 부다피아는 이미 1차 시범가동을 시작한 지난달 미국의 거대 정보검색업체인 '링크스타'로부터 선(禪, zen)부문 정보제공단체 중 최고의 점수(1천점 만점에 1천점)로 1위를, 일반 불교정보 부문에서도 2위(4백90점)로 평가 받았다. 또 각국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한국 불교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게되 기쁘다"는 내용의 축하메시지를 전자 우편을 통해 보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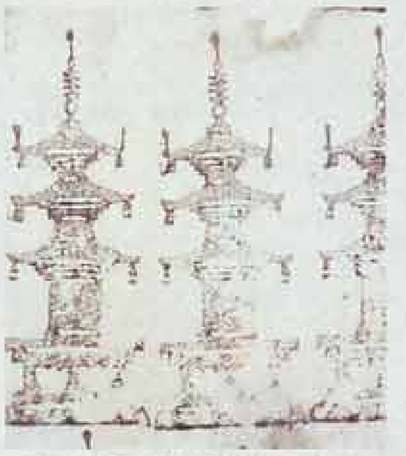
작년 10월 기초 설비를 갖추고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온 부다피아가 제공하는 불교관련 정보는 7가지의 주제별 홈페이지로 구성됐다. '현대불교신문 읽기' '한국불교 종단안내' 온라인불교출판' '생활불교정보' '선관련정보' '불교인터넷네트워크' '인터넷네트워크' 등이 그것. 이에따라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언제든지 부다피아를 접속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궁금증도 전자우편을 통해 풀 수 있게 됐다.

부다피아는 또 올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봉축행사들도 별도의 홈페이지 '불기 2540 봉축행사 안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부다피아는 봉축기획단 · 한국불교문화원과 협조체제를 마련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다.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의 의의를 비롯 각종 문화 행사와 법요식 연등축제 등의 일정과 행사내용을 제공한다.

불교관련 정보의 연동 서비스, 동화상 음성 서비스,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법회의 생중계 체계구축등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위해 부다피아는 전문인력과 데이타베이스의 고급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관련 특집 9 · 10 · 11 · 12면



천년만에 빛본 다라니경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나온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 다라니경은 서기 754년경 닥나무 한지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일부내용을 필사하고 탑모양의 도장을 발췌해 필사하고 탑모양의 도장을 파서 탑인(塔印)을 찍어놓은 백지묵서경(白紙墨書經)으로 드러났다. 필사본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본에 이어 두번째 것이다. 〈관련기사 6면〉

4 · 10 승려대회 2년
10일 조계종 기념식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4 · 10 승려대회 2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기념식을 봉행한다.

총무원은 승려대회를 이끌었던 스님들, 개혁회의 기간중 총무원 소임을 맡았던 스님등을 초청, 개혁정신을 되새기고 향후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모색한다.

조계종 제120회종회 주요 결의사항

조계종 제120회 임시중앙종회가 지난달 31일 폐회됐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종회는 △95년도 결산 △종무보고 △사면동의 △중앙승가대부지 변경건 등을 처리하고 △종법제,개정 △토지처분 △청원서 등의 안건을 4월경에 임시종회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선학원 더이상의 대화노력은 무의미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단 뜻을 따르지 않는 선학원 임직원 소환조사 중징계, 법적대응 통해 정관변경과 최초 출연재산 조계종으로 소유권 회복토록 홍보해 선의의 피해자구제. 조사 징계범위는 집행부에 일임.

중앙승가대 부지이전 정규대 승격, 승가대이전, 이전부지등 승가대 관련안건 중앙승가대이사회가 최종 결정후 종회에 보고, 승가대대책위 해체. 〈관련기사 3면〉

사면동의 사면대상자 20명가운데 사면 2명,복권 9명,보류 5명,경감 2명,심사제외 2명등 대사면단행. 황현-사면, 보정-복권, 도각-공권정지1년, 지호-복권, 보원-사면, 도오-복권, 지원-복권,일법-복권,대우-공권정지 6개월, 시진-복권, 혜성-복권, 하능-복권, 탄우-복권.

백양사 고불총림설치 총림설치 만장일치통과, 총림설치법 개정 추진. 〈관련기사 3 · 4면〉

봉은사 사회체육문화센터 · 대구 은적사 불교회관 경매 재정분과위와 감사국 합동감사실시.

불국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11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위법사실에 대해 호법부 조사후 의법조치. 중앙선관위와 법규위 직무유기 경고.

현대불교신문은 중 · 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데생교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 · 고교에 보급합니다.

중 ·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월주스님 ◇혜초스님 ◇홍파스님 ◇성타스님 ◇법산스님 ◇서돈각박사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종립학교(10구좌) △최혜초 태고종총무원장: 보문고 정광중 · 고 홍대부중 서울과학고(5구좌) △이홍파 관음종총무원장: 종로구내학교(3구좌) △이성타 조계종 포교원장: 종립학교(2구좌) △이법산 동대정각원장: 종립학교(3구좌) △서돈각 불교진흥원이사장: (2구좌) △허혜정스님(문수사): 청담학원(1구좌) △박혜문스님(황룡사): 천안여고(1구좌) △이광택: 미술학원(1구좌) △이준영: (1구좌) △김현식: 미술학원(1구좌) 〈4월4일 현재〉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제작(원형 높이 93.5㎝를 높이 55㎝ 폭 35㎝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보급방법: 직접 방문 기증 · 화물수송 · 수용학교 직접 수령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별지부록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부다피아 특집 포함 20면 발행
불교전문서점 제자리 찾았다 7면
청주인쇄문화축제 현장 8면
도심사찰 재개발 피해 심각 1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한정보급!

팔만대장경을 아십니까?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치심'의 총칭으로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經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律이란 불교도의 생활규범이며, 논論은 경과 율에 대한 조사들의 논문입니다.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행된 구판舊版 대장경은 1011년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발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087년까지 무려 칠십육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장경에 견주어 그 무엇으로서는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八公山 부인사符仁寺에 봉안된 이 구판 대장경은 고종 19년인 1232년에 몽고군의 병화로 그만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 년 뒤인 12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불사를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되니, 십육 년에 걸친 이 큰 불사의 결실이 바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모셨으나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져서 서울의 지천사支天寺에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태조임금 때인 139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모신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장경 판수가 팔만여 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했을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리킬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풍례대로, 가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품 복제경판을 보급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명이 모여져야 가능합니다.

A형

B형

■가로 69.5cm, 세로 23.9cm로 원본과 같은 크기 입니다.
품위있는 구양순체에 원판각인상태 그대로의 A형과 금박을 입힌 B형 두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판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반야심경원판복각본의 탁본 1매와 보증서를 드립니다.

살아숨쉬는 역사를 소장하십시오

세계문화재 팔만대장경을 소장하시는 분은 품위있고 편안한 만족과 함께 21세기대장경을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문화인의 긍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않는 마음의 뜻대로 삼으십시오

팔만대장경에는 무력앞에서도 꺾이지않은 조상의 고귀한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불굴의 호국정신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800년전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 정신이 한자 한자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진품복제경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 반야심경
크기 : 원판의 크기와 동일 (가로 69.5cm, 세로 23.9cm)
재질 : EPOXY
서체 : 구양순체
가격 : ₩200,000
제작 : 고려대장경 연구소
구입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